



김오섭 지부장



김삼규 부지부장



우윤영 부지부장



윤기영 고문



이영달 고문

우리가족한마당

밀고 끌며 알찬 조직 운영

조직이 활성화하려면 집행부의 의지뿐 아니라 허부 조직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부천시부는 지역장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부의 회원을 위한 각종 공동 구매, 기술 세미나, 과우인의 밤 행사,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중장년층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각 지역의 명물들이 있다. 대구의 사과, 나주 배, 광주 무등산 수박 등이 그것들이다. 이중 복숭아를 떠올리노라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소사의 복숭아'를 들 수 있다. 그 옛날 복숭아로 유명한 소사로 불리웠던 부천. 그러나 지금은 서울과 인접한 거대 도시로 신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부천을 들어서게 되면서 받는 첫 느낌은 도시 자체가 활기에 넘쳐 난다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부천은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곳으로 3,600개의 크고 작은 중소도시를 거느린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높은 빌딩과 정비된 도로를 따라 상권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부천은

서울 주변의 그 어느 도시 못지 않는 거대 위성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며 그에 걸맞게 탄탄한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는 부천 제과인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30여 회원 거느린 건실한 조직 운영 자랑

부천 제과인의 집결체인 부천시부(지부장 김오섭)가 창립된 것은 1982년으로 올

해 15년째를 맞는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부천시부의 출발 역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부 설립 이전 7개 업소가 요식업 조합에 속해 제과인만의 구심체 결성을 꿈꾸어 오던 부천 제과인들은 업소가 30여개로 늘게 되면서 1982년 염원하던 지부 설립을 이루게 되고 현재 230여 회원을 갖춘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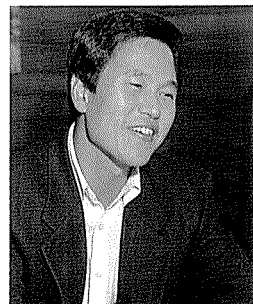
현재 부천시부는 지부장을 비롯해 각 2명의 부지부장과 고문, 감사, 10명의 이사를 포함한 17명의 임원직과 별도로 13개 지역장으로 구성돼 있다. 임원진 구성의 면면을 보면 오늘날 토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한 원로를 비롯해 젊은 이사진과 여성 이사 등 신구의 조화를 갖추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설립 초기 각 회원들이 사무실 마련을 위해 커텐, 선풍기, 사무실 집기 등을 회사하고 성금을 모아 지부 설립에 응집력을 발휘했듯 지금의 부천 지부가 특유의 친목과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3개 지역장의 노고가 절대적이며 그 어느 곳보다 지역장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부천시부는 각 지역마다 친목회가 조직돼 있어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애경사는 물론 제품의 가격과 재료 수급 등에 대해 상부상조하고 있다. 또 지역장 제도를 통해 협회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회비를 수납하는 등 열성적인 지역장들의 활동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회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부천시부라는 설명이다.



김정연 감사



김건기 감사



공노석 총무이사

공동구매, 세미나 등 회원 위한 사업 활발

이런 회원의 친목과 협조는 부천시부의 회원을 위한 노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부천시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동 구매 외에도 별도로 마아가린, 쌀, 후르츠카테일 등의 자체 공동 구매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부천시부가 지부 차원에서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쏟는 노력도 각별하다. 부천시부는 정기 총회와 함께 과우인의 밤 행사와 체육대회를 번갈아 가며 실시함으로써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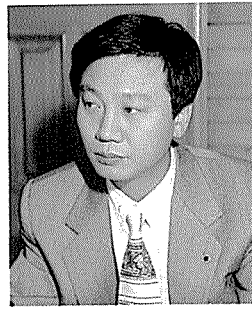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일 개최된 바 있는 과우회 밤 행사에 회원 80여명과 관련 업체 인사가 참여해 노래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회원의 친목을 과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친목과 단합의 결과로 부천시부는 지역 관련 업체와도 협조가 잘 되는 곳으로 꼽힌다.

최근 부천지역의 기술 수준은 급상승했다고 한다. 서울과 인접해 소비자 수준이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부천시부의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도 무관치 않다. 부천시부는 1년에 평균 2회의 기술세미나와 1회 경영 세미나 개최를 통한 회원 발전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외 활동으로도 나눔의 의미에서 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친목과 단합의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휘된다. 회원 자녀 중 백혈병 환자가 있어 많은 혈액이 필요할 때 부천시부 회원이 앞장서 헌혈 카드를 모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한 예는 부천시부의 결속력이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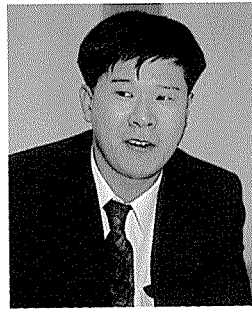
이충연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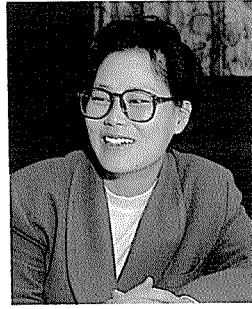
주삼조 기술이사



서순자 이사



정복규 이사



오미령 이사



이국상 이사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무실 확장·세미나실 마련 등 계획 추진

부천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부천시부는 앞으로 300개 업소까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부는 앞으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의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실습실까지 갖춰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회원의 이익을 위해 기존 공동구매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한편 최근 배정 물량이 적어 공동 구매가 어려운 팔을 수입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천에 여성 업주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여성 모임 구성을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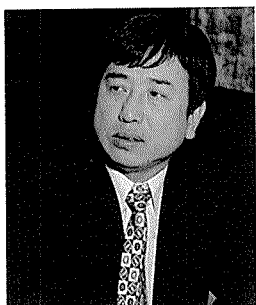
도록 힘을 계획이다.

하나의 조직이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 조직을 이끄는 집행부의 의지만 강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 조직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천시부는 지부장을 비롯한 이사진 등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각 지역장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한 결과 오늘날의 부천시부를 일구어 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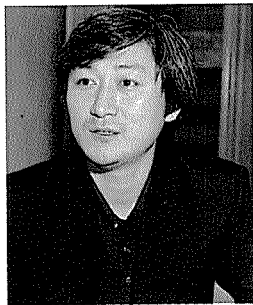
또 부천시부의 회원을 위한 과우회 행사, 체육대회, 각종 공동 구매, 기술 세미나 및 경영 세미나 등으로 다져진 회원의 지부에 대한 신뢰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융화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부천시부의 예상처럼 70여개의 업소가 새로 증가된다고 하면 이들 업소에 대한 융합의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부천시부가 집행부나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 조직이 특유의 결집력으로 지금의 지부를 일구어냈고 앞으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K]

〈글/박중선〉



문영모 이사



한정기 이사



최현철 이사